

『리어왕』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서 가장 정동적인 극이다. 인물들은 모두 강한 정념(passion)의 소유자들이며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정념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리어왕』의 비평사를 보면 극의 정동적 특징이 리어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극의 강한 정념에 주목한 전통적 비평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해석해 리어의 비극을 보편적 인간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극의 정치성의 규명을 목표로 한 비평들은 정념을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거나 합리화 혹은 역사화하려 시도한다. 리어의 비극의 해석에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지만 이들은 정념 혹은 감정을 비정치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동일한 전제에서 있다. 리어의 정념은 개인의 것이면서 왕의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사건과 관계에서 발생하며 또 그 관계를 구성한다. 극의 정동적 특징의 정치성은 무엇일까.

정념 또는 감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최근 정동의 문제를 둘러싼 탐색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정동적 전환’(Affective Turn)을 알리는 책자로 평가받는 『정동이론』(*The Affect Theory Reader*)의 편집자인 시그워스(Gregory J. Seigworth)와 그렉(Melissa Gregg)이 지적하듯 전환의 배경에는 여러 갈래의 이론적 흐름이 자리하며 인지과학과 문화연구,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비평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이 단일한 담론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념, 감정, 셴티먼트(sentiment)라는 좀 더 익숙한 개념대신 정동이라는 낯선 용어를 선택해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배경에는 관계성에 대한 강조가 자리하며, 최근의 정동적 전환은 이데올로기 논쟁의 전환 국면과도 맞물려 있다. 혹자는 자본주의의 번성 또 다른 이들은 자유주의의 위기로 지칭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인지자본주의로의 이동, 글로벌 정치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더욱 복잡해진 권력의 작동방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론이 요청되고 있으며, 정동의 대두는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정동이론가들은 정동이라는 새로운 문제틀의 도입으로 억압적 장치를 넘어 “정동적 일차성의 수준에서, 즉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기 이전에, 내장속이나 살결에서 느껴지는 수준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작동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셰익스피어의 시대인 17세기는 바로 정동의 정치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였다. 평자들은 이 시기에 정념에 대한 이해에서 큰 전환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정념은 사회성의 반대항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념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시민사회의 수립에 핵심적이었다면, 17세기에 정념은 정치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홉스(Thomas Hobbes)가 인간의 정치적 동의는 “이성보다는 증오, 두려움, 희망, 사랑 또는 기타 정념에서 나온다”며 국가질서의 바탕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위치시켰다면, 스피노자(Baruch Spinoza)는 갈등의 지속적 원인인 공포와 증오와 같은 정념도 사회적 유대의 한 종류이며 사회적 정념임을 주장했다. 정념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바탕에는 푸코(Michel Foucault)가 이야기하는, 왕의 교체로 왕권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주권권력의 위기가 자리한다. 인민과 군주사이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 담론에서 정치적 복종이 규범이나 자연법의 문제였다면 17세기 논자들은 주권권력의 위기의 시기에 혁명의 동요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정치적 행동을 구성하고 추동하는 힘으로서 정념에 주목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합리성을 구성하고자 시도했다. 『리어왕』의 정념과 정치적 관계에 대한 탐색은 바로 동일한 시대적 상황에 위치한다. 『리어왕』은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리어왕』에서 고대

브리튼 왕국의 왕인 리어는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왕으로 다시 태어나며 셰익스피어는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절대적 권력을 누리던 리어가 왕과 아버지의 자리에서 밀려나 가장 비천한 인간과 하나가 되며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왕의 죽음을 그리고 있다. 왕의 죽음은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역사극은 물론 희극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인데, 『리어왕』에서는 다른 극에 비해 정념의 역할이 강조된다. 인물들의 강한 정념은 왕의 죽음, 즉 주권권력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체의 토대에 대한 공통의 합의가 위기에 처하면서 정념들은 더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극은 인물들의 정념의 마주침 속에서 정념과 정치의 관계를 탐색하는 한편 새로운 정치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